

프랑크족에 대한 우사마 이븐 문끼드의 인식*

— 회고록 『성찰(省察)의 서(書)』 텍스트 분석

김능우**

[초 록]

본고는 우사마 이븐 문끼드의 회고록인 『성찰의 서』에서 프랑크인들에 관련된 일화들을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십자군을 상대로 전쟁에 참여하고 때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목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 그가 인지한 것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사마가 회고록에서 프랑크족 문제를 중시해 기록했음은 대(對)십자군 관계가 당대 무슬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이슬람 영토의 침략자들인 프랑크족에 대한 자신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

주제어: 우사마 이븐 문끼드, 성찰의 서, 십자군 전쟁, 대(對)십자군 전쟁, 프랑크족, 프랑크족에 대한 증오, 프랑크 문화에 대한 경멸, 프랑크족의 장점, 무슬림과 프랑크족의 교류

Usama ibn Munqidh, *Kitāb al-I'tibār*(The Book of Contemplation), Crusades, Wars Against the Crusaders, the Franks, Hatred of the Franks, Contempt for the Frankish Culture, Merits of the Franks, Social Relations between Muslims and Franks

경험과 지식을 전함으로써 향후 무슬림들이 프랑크족에 대처하고 현실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적 진영인 프랑크족에 대한 우사마의 분노와 증오는 몇몇 일화에서 프랑크족에 대한 신의 저주와 징벌을 기원하는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적개심과 반감이 『성찰의 서』에서 우사마의 유일한 對심자군 감정이나 입장은 아니며, 일부 일화들은 그를 포함한 일부 무슬림들이 프랑크인들과 친분이 있거나, 개인적 교류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점은 십자군과 무슬림들 양 진영 간의 갈등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의 틀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우사마는 프랑크족의 문명 수준에 대해 대체로 경멸과 비하의 태도를 갖고 있다. 그가 보는 프랑크족은 전쟁 수행 같은 물리적 활동에 능한 반면, 세련되고 지적인 문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때로 우사마는 프랑크족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신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음이 발견된다.

넷째, 우사마는 대체로 프랑크인들을 열등한 족속으로 여기지만, 두 부류의 프랑크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다. 그중 하나는 십자군 기사로, 우사마는 그들에 대해서 존경과 관심을 보이며, 일부 기사들과 돈독한 우의를 유지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두 번째 부류는, 오래전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다가 이슬람 지역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이슬람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진 프랑크인들로, 우사마는 이들을 교분을 나눌만한 자들로 여긴다.

1. 서론

논자는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이 충돌한 과거의 대사건인 십자군 전쟁에 관해 한국 학계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당대 아랍 자료를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동안 논자는 십자군과 이슬람 진영 간의 갈등 상황에 관해 중세 아랍 문헌을 통해 연구해왔고, 그 과정에

서 대(對)십자군 전쟁 관련 중세 아랍 문학 작품과 역사 문헌을 택해 역주(譯註)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¹⁾ 그러한 중세 아랍 문헌 자료들 중에 특히 우사마 이븐 문끼드(أسامة بن منقذ 1095-1188년)(이하 ‘우사마’로 줄임)의 회고록이자 자서전인 『성찰의 서(كتاب الاعتبار)』(이하 『성찰』로 줄임)은 논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바로 우사마가 약 2세기 동안 이어진 이슬람과 십자군 간의 전쟁 기간 중 약 절반 가량인 첫 한 세기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 그 자신이 이슬람 진영의 군 지휘관으로 對십자군 전쟁에 몸소 참여했고, 또한 외교관으로 프랑크족 진영을 왕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그는 단순히 통치자의 궁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사무를 맡아 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군 병력을 상대로 무슬림 병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싸우는 전사(戰士)이자, 필요에 따라 십자군측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사절(使節)로 파견되어 프랑크인 책임자들을 만나는 등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서 뒀 인물인 것이다. 더욱이 우사마는 93세의 생을 살면서 장수한 덕분에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풍부한 인생 경험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경험이 글로 남지 않는다면 후대 사람들은 그 자로부터 들어 배울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다행히 우사마는 탁월한 문인으로, 아랍시와 글쓰기에 능했으며 이러한 재능에 힘입어 그는 자신의 독특한 경험담과 사색 등을 담은 『성찰』이라는 자서전을 후세에 남겨줄 수 있었다.

우사마가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활동한 공간과 시간의 규모가 작용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적으로 그의 삶은 자신의 고향인 북부 시리아의 샤이자르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우사마는 그의 삼촌으로 샤이자르의 통치자인 술탄(أبو العساکر سلطان 1082-98 재위)과의 정치적 갈등을 피해 그곳을 떠나 힘스, 모술, 다마스

1) 이미 출간한 책으로는 『중세 아랍시로 본 이슬람 진영의 대(對)십자군 전쟁』이 있고, 출간 예정인 것으로는 『기독교인이 본 십자군, 무슬림이 본 십자군: 십자군 관련 동시대 유럽어 사료, 아랍어 사료 번역』(공동 번역), 『성찰의 서』가 있다.

쿠스, 이집트, 디야르 바크르 등지로 생활 터전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조, 부리조, 파티마조, 아르투끼드조, 아이유조의 여러 통치자를 보좌하며 지냈다. 또한 시간적으로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생을 이어갔다. 그는 이처럼 거의 한 세기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군 지휘관으로 지내면서, 지역 내 정쟁(政爭)과 전쟁, 對십자군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사건들에 참여하게 된 결과, 많은 모험과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성찰』 목차에 나온 장, 절의 제목이나 항목들을 일별하더라도²⁾ 그의 생에서의 변화와 기복이 얼마나 심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성찰』은 우사마가 태음력[이슬람력] 나이로 90세(약 1183년. 태양력으로 88세)에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우사마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받아쓰게 한 것으로 보이는⁴⁾ 이 자서전에서 그는 생애 중 자신이 몸소 겪은 사건이나 들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간적 범위는 우사마가 샤이자르에서 보낸 자신의 청소년기부터,⁵⁾ 對십

-
- 2) 『성찰』의 “1장. 내 인생에서의 대사건과 재난”의 목차를 보면 우사마 본인을 포함해 인간의 생사가 걸린 크고 작은 사건들에 관련된 항목이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對프랑크족 전투’, ‘이집트 군대 내에서의 반란’, ‘재상이 칼리프를 살해하다’, ‘사자를 비롯한 맹수와의 싸움’, ‘전쟁 경험’, ‘칼로 내리쳐 이스마일파 사람의 두개골을 쪼개다’ 등.
- 3) Paul M. Cobb (2008), *Usamah ibn Munqidh-The Book of Contemplation-Islam and the Crusades*, Penguin Books, xxxiv.
- 4) 콕(Cobb)은 『성찰』에서 온전고 고전 아랍어(classical Arabic)를 사용하지 않고, 어법상 덜 엄격한 형태의 ‘중간 아랍어(Middle Arabic)’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우사마가 자신의 말을 기록자에게 받아쓰게 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Paul M. Cobb (2008), xxxvii.
- 5) 『성찰』에서 우사마의 청소년기를 보여주는 예화는 <피를 보고 기절하는 남자> (“당시 나는 열 살이 채 안된 소년이었다.”), <탕크레드의 무가치한 안전 보장 약속> (“그때 소년이었던 나는 부친 뒤에 서있었다. 그날은 내가 처음 전투에 참가한 날이었다.”), <용감한 부친과 삼촌> (“당시 소년이었던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갔다.”)가 있다.

자군전쟁을 이끌었던 무슬림 지도자들인 장기, 누르 알딘, 술탄 살라딘의 무인(武人)이자 신하로 지낸 시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간적 요소의 반영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우사마의 거취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부분으로, 그것은 우사마가 장기조에서 부리조, 파티마조, 이어 다시 장기조로 옮겨 가며 겪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둘째는 우사마가 생애 중 겪거나 목격한 사건들, 타인에게서 들은 기이한 일들, 그의 생각 등을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기록한 부분이다. 전자는 이 책의 1장 앞 부분(1절-4절)에 들어 있어 이 부분을 읽으면 우사마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조(이마드 알딘 장기), 부리조, 파티마조, 다시 장기조(누르 알딘)로 이동하면서 경험한 일들이 소개되어 있다.⁶⁾ 이 앞부분을 제외하면 책의 나머지 부분에는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의 추이와는 관계없이 우사마가 기억하거나 수집한 다양한 일화들이 일정한 주제나 제재 하에 나열되어 있다. 그런 일화들의 내용은 다양해서 전투 관련 이야기, 여러 인물의 무용담, 맹수 사냥, 프랑크인들의 특성, 무슬림 성인(聖人)들에 관한 기담, 특이한 치료제나 약(藥) 소개 등을 중심으로 그밖에 -우사마의 관점에서- 특이하거나 매우 이례적이고 신기한 사건들에 관한 신변잡기를 포함한다.

우사마의 생애는 거의 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1098) 시기부터 살라딘의 예루살렘 탈환(1187) 시기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이슬람 지역에 대한 십자군의 공격과 점령이 이어졌고, 이에 맞서 파티마조, 장기조, 아이유브조의 군사적 대응이 전개되었다. 이슬람 지역의 여러 왕조에서 신하이자 군 지휘관,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우사마는 對십자군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프랑크족 지역을 왕래하면서 그들에 관련된 자신의

6) 우사마는 이 부분에서 생애 중 자신이 군 지휘관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기간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략 그의 나이 36살부터 69살까지의 기간이다. 그 전후의 시기, 곧 그가 인생 초기에 샤이자르에서 보낸 기간과 노년에 아르투키드조와 아이유브조에서 보낸 기간은 이 부분에서 빠져 있다. 다만 그 빠져있는 부분은 『성찰』의 나머지 부분에서 소개되는 일화나 이야기에서 드문드문 보이고 있다.

경험과 관찰 사항, 일화 등을 『성찰』에 기록했다. 특히, 우사마는 1138년 고향 샤이자르에서 나온 후 1144년까지 다마스쿠스에서 부리조7)를 위해 일하면서 아타벡 무인 알딘 우누르8)가 추진한 對프랑크 데탕트 정책을 위해 외교 사절로 예루살렘이나 프랑크 지역들을 방문해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우사마는 십자군 측과 많은 교류를 함으로써 프랑크인들의 관습과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서전 『성찰』의 집필 자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성찰』에서의 기록을 통해 프랑크족에 대한 우사마의 관찰 사항과 인식,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9)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것은 전체 3장으로 구성된 『성찰』에서 논자가 번역한 1장¹⁰⁾의 본문이다.¹¹⁾

- 7) 부리 조(the Burid dynasty): 투르크족 혈통의 왕조로 1104-54년, 50년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했다. 창건자는 셀죽조 술탄인 투투쉬의 아들 두까끄의 아타벡(atabeg, 후견인)이었던 푸그다킨[푸그타킨](ظهير الدين طغتكين 1128 사망)이다. 1104년 두까끄의 사망 후 푸그다킨은 다마스쿠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 자신의 왕조인 부리조를 창건했다. 부리조는 1154년 누르 알딘에 의해 다마스쿠스가 함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부리조 통치자들은 치세 중 안티오크, 트리폴리, 예루살렘의 십자군 국가의 위협에 시달려 부득이하게 십자군 측과 때로 협상하거나 동맹 조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을 도모했다. 당시 부리조는 다마스쿠스 주변의 주요 식량 공급지대를 십자군에게 빼앗기는 것을 피하고, 다마스쿠스와 이집트, 아라비아간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십자군 측과 협상하는 길을 택했다. 1130년 장기조의 이마드 알딘 장기와 누르 알딘이 알레포의 통치자가 되고 나서부터 장기조는 부리조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갔고, 부리조의 통치자들은 이에 맞서 십자군 측에 지원을 청했다. 그러나 1148년 2차 십자군이 다마스쿠스를 공격한 것으로 인해 부리조는 친(親)십자군 정책을 중시했고 이어 다마스쿠스는 누르 알딘에 의해 함락되었다. H. A. R. Gibb & others (1986), *The Encyclopedia of Islam*, vol. 1, new edition, E. J. Brill, Leiden, Netherlands, 'BURIDS'.
- 8) 무인 알딘 우누르(معين الدين اتر): 다마스쿠스의 부리조 치하에서, 통치자 무지르 알딘의 아타벡으로 있다가, 1149년 무지르 알딘의 사망 후 국정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다. 이후 장기조의 누르 알딘에게 복속했고 다마스쿠스로부터 누르 알딘에 의해 1154년에 추방되었다. H. A. R. Gibb & others (1986), 'Burids'.
- 9) 본고의 연구 배경과 목적에 관련해서는, 줄저 『중세 아랍시로 본 이슬람 진영의 대(對)십자군 전쟁』(pp. 5-10, pp. 15-23)에서 십자군 전쟁에 관한 중세 아랍 자료의 한글 번역과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2. 『성찰의 서』에 나타난 프랑크족

2.1. 프랑크족에 대한 증오

무슬림들에게 프랑크족은 이슬람 영토를 침공해 점령한 적이었다. 우사마는 『성찰』에서 프랑크족에 대한 강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십자군에 대한 이슬람 진영의 깊은 증오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그러한 증오를 표현하는 방법은 독특하다. 그는 프랑크족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장황하게 서술하기 보다는 아주 짧은 문구를 사용해 표현한다. 그것은 곧 그가 ‘프랑크족(الإفرن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종종 ‘알라여 그들을 버리소서(اخْلهم الله)’,¹²⁾ ‘그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있기를(لعنهم الله)’¹³⁾ 등의 다분히 악의가 담긴 기원문을 덧붙이는 것이다. 코란에서는 알라가 주어가 되고 لعن(저주하다)가 술부가 되는 저주의 문구

10) 논자는 『성찰』의 1장을 역주하여 출간을 준비 중에 있다. 1장은 책 전체 분량의 약 4/5(75%)에 해당한다.

11) 본고에서 인용한 『성찰』의 아랍어 원문은 논자가 역주 작업에서 저본으로 사용한 다음 문헌으로, 이하에서 KI로 표시한다.

أسامة بن منقذ، كتاب الاعتبار، حرره فيليب حتي، مكتبة الثقافة الدينية، القاهرة.

(우사마 이븐 문끼드, 『성찰의 서』, Philip K. Hitti 편(編), 카이로: 종교 문화 도서 출판사)

참고로 이 저본은 Hitti 교수가 1930년 편찬한 다음의 아랍어 원본을 카이로에서 재간행한 것이다.

Usāmah ibn Munqidh, *Usāmah's Memoirs entitled Kitāb al-I'tibār*, Arabic Text edited by Philip K. Hitti, Princeton Oriental Texts, Vol.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1930.

12) 『성찰』, 1장에서 6회 사용함.

13) 『성찰』, 1장에서 23회 사용함. 아랍어 동사 لعن은 일반적으로 ‘저주하다’의 의미를 갖지만, 신(알라)이 주체가 될 경우 ‘저주하다’ 외에 ‘~을 징벌하다(عَنَّب)’ 또는 ‘~에게서 복(福)을 없애다(من الخير طرده وأبعده)’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아랍어 문장 لعنهم الله를 ‘그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있기를’로 번역하기로 한다.

가 자주 사용되었다. 가령, *فلعنة الله على الكافرين* (불신자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있으니. 2: 89), *لعنهم الله بكفرهم* (그들이 불신자들이어서 알라께서 그들을 저주 하셨다. 2: 88), *الله ورسوله لعنهم الله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إن الذين يؤنن* (알라와 그분의 사도를 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알라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하실 것이니. 33: 57) 등이다. 반면에 코란에서 알라를 주어로 *خذل*(버리다)가 들어간 문구는 단 한번만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إن ينصركم الله فلا غالب لكم وإن يخذلكم فمن ذا الذي ينصركم الله من بعده* (알라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면 아무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알라께서 너희들을 버리시면 누가 너희를 도울 것인가? 3: 160)이다.¹⁴⁾ 이상에서 코란의 예문을 통해 보건대 *لعن*는 불신자들과 이슬람에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한 알라의 분노와 엄중한 징벌을 의미하며, *خذل*는 알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사마는 『성찰』에서 때로 한 지면에서 이런 저주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적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드러낸다.¹⁵⁾ 우사마가 이처럼 십자군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담은 표현을 쓰는 경우는 그 대부분이 십자군이 이슬람 지역이나 무슬림들에게 무력을 사용해 위해를 가한 사건을 언급할 때이다. 그 몇 가지 예를 보자.

한 예는 <로마인들과 프랑크인들이 샤이자르를 포위하다>이다. 우사마가 장기조에서 근무할 때 그의 고향 샤이자르가 비잔틴과 십자군 연합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당시 상황을 기술하면서 우사마는 십자군에 대해 증오를 나타낸다. (이하에서 밑줄은 논자가 부가한 것임)

ابن منظور، لسان العرب، الطبعة الأولى، دار صادر، بيروت، لبنان، "العن"؛ جماعة من كبار اللغويين العرب، المعجم الأساسي، لاروس، "العن".
14) محمد سعيد اللحام (2005)، المعجم المفهرس لألفاظ القرآن الكريم، دار المعرفة، بيروت، لبنان، ص 832، 982.

15) 예로 원문 17쪽에서 ‘그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있기를’의 구절을 두 번 사용했다. 그러나 한 지면에서 ‘프랑크족(الإفرنج)’이라는 단어마다 이 구절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그후 로마의 왕¹⁶⁾이 532년[1138년] 재차 (시리아) 지역으로 진출했다. 그와 프랑크인들-알라여 저들을 버리소서-은 합의하여 샤이자로 가 그곳을 공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I, p. 2)

다른 예화 <창이 여러 개의 갈비뼈를 절단하다>에서, 우사마는 십자군 기병이 무슬림 병사를 창으로 찔러 절명시킨 일을 언급하면서 프랑크족에 대한 증오를 담은 표현을 덧붙인다.

[나는 창에 찔리는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프랑크족-알라여 저들을 버리소서- 기병이 우리 병사들 중 킬랍 부족 출신의 사바흐 이븐 꾸나입이라는 이름의 기병을 창으로 찌른 일이 있다.] (KI, p. 48)

또한 우사마는 약속을 저버리고 무슬림에게 해를 가하는 특정 프랑크인에 대해서도 저주를 담은 구절을 덧붙인다. 그 예는 <탕크레드의 무가치한 안전 보장 약속>(원문 65-7쪽)에서 볼 수 있다. 안티오크의 십자군 영주 탕크레드(Tancred)는 무슬림 기병인 하사논의 기마 실력에 감탄한 뒤, 훗날 만일 전쟁에서 하사논이 십자군에게 잡히게 되면 그를 풀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후, 실제로 전투에서 하사논이 십자군에게 생포되자 탕크레드는 약속을 어기고 그에게 무자비한 고문을 하고 돈을 요구했다.

[적군은 그를 잡아 포로로 데려갔고 그를 여러 방법으로 고문했으며, 그의 왼쪽 눈을 뽑으려 했다. 그러자 탕크레드-알라의 저주가 있기를-가 병사들에게 말했다. ‘그자의 오른 눈을 뽑아라. 그래서 그

16) 비잔틴 황제 요한네스 2세 콤네누스(John II Comnenus, 1118-43)를 가리킨다. 그는 1138년 봄에 시리아 지역을 침입했고, (샤이자르) 포위는 4월 28일부터 5월 31까지 이어졌다. Paul M. Cobb (2008), p. 276.

가 방패를 들면 그의 왼쪽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병사들은 탕크레드가 명한 대로 하사논의 오른 눈을 빼버렸
다.](KI, pp. 66-67)

프랑크인에 대한 우사마의 증오는, 무슬림이 되었다가 다시 기독교도
로 되돌아간 프랑크인을 비난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예화 <프랑크인이 무
슬림이었다가 기독교도가 되다>를 보면, 우사마의 집에서 성장한 프랑크
인이 성실한 무슬림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다시 프랑크족 지역으로 가
서 기독교도가 된다. 예화의 말미에서 우사마는 “지고하신 알라께서는 그
런 자들로부터 세상을 정화(淨化)시키나니(فَاللّٰهُ تَعَالٰى يَطْهَرُ الدُّنْيَا مِنْهُمْ).”(KI,
p. 131)라고 말하며 그 프랑크인에 대해 파멸이라는 신의 징벌이 있기를
기원한다. 우사마의 부친이 돌보아준 은혜를 저버리고 이슬람을 버린 프
랑크인의 배교 행위에 대한 우사마의 분노의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서
‘정화하다(يَطْهَرُ)’¹⁷⁾의 표현은 더러운 것이나 불결함을 씻어내듯이 이슬람
에 반(反)하는 불신자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저주하다(لَعَنَ)’, ‘버리
다(خَذَلَ)’와 같이 적군인 프랑크인들을 응징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은 중
요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우사마는 프랑크족을, 비천하고 혐오스런 동물인 개¹⁸⁾에 비유

17) 코란에서도 불신앙이나 이슬람 교의에 배치되는 관습을 일소한다는 의미로 ‘정화하다
الله لِيُذْهِبَ عَنْكُمُ الرِّجْسَ أَهْلَ الْبَيْتِ وَيُطَهِّرَكُمْ تَطْهِيرًا (يَطْهَ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 거주하는 자여, 알라는 오직 그대들로부터 부정(不淨)을 제거하
고 그대들을 정화하기를 바라실 뿐이다. 33: 33), الذين لم يُرِدْ اللهُ أَنْ يُطَهِّرْ قُلُوبَهُمْ أُولَٰئِكَ (이들
에 대해서는 알라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니. 5: 41) 등
이 있다.

محمد سعيد اللحام (2005), ص 1012.

18) 아랍 민간에서 개의 모티프는 비천함과 충직함이라는 상반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다. 또한 개는 진(jinn) 마신(魔神)과 연관되어, 진의 이동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검정 개는 진 또는 사탄과 연관되어 불길함을 의미한다.

محمد عجيبة (1994), موسوعة أساطير العرب عن الجاهلية ودلالاتها، المجلد الأول، دار الفارابي، بيروت، لبنان، ص 297-299.

하기도 한다. 전투에서 한 프랑크인 기병이 우사마의 사촌 형제인 알카밀의 말을 찢러 죽이고 알카밀을 계속 공격하려 하자 우사마는 말을 타고 달려가 그 사촌을 구한 뒤 그 프랑크인 기병에게 되돌아가 싸우려 한다. 혈기 왕성한 무슬림 전사로서 우사마는 전장에서 아군에게 피해를 입힌 적군에 대한 분노를 담아 적 기병을 ‘개(كلب)’로 지칭하며 그자를 응징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인다.

[나는 카밀을 데려다주고 그 개 같은 자[프랑크인 병사]에게로 돌아왔건만 그는 이미 자신의 동료들에게 가 있었다.] (KI, p. 91)

2.2. 프랑크족 문화에 대한 의아심과 경멸

우사마는 프랑크족의 생활상을 관찰하는 가운데 큰 문화적 충격을 받는 동시에 그들의 문명 수준에 대해 경멸조로 비하한다. 구체적으로 우사마는, 이슬람과 차이가 있는 기독교의 신관(神觀), 프랑크족의 의학 지식의 수준, 윤리관, 재판 과정에서의 열등함과 미개함을 폭로하며 그들의 무지와 윤리 의식의 부재를 꼬집는다. 몇 가지 예화를 보자.

예화 <어린애 모습의 하나님>에서 우사마는 프랑크인 기독교도가 보여준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예수의 그림을 보고 의아하게 여긴다.

[나는 프랑크인이 바위의 돔 사원¹⁹⁾에 있는 아미르 무인 알딘에게 온 것을 보았다. 그가 아미르에게 “당신은 하나님[알라]의 어린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라고 묻자 아미르는 “그렇소”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앞으로 걸어나 마리아가 무릎에 어린 예수-그분께 평화가 있기를-를 안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프랑크인은 “이 분이 어린 모습

19) (جامع الصخرة Dome of the Rock). 예루살렘의 아크사 사원 근방에 있는 이슬람 사원. 프랑크족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기간 중 이 사원을 교회로 변경시켰다. Paul M. Cobb (2008), p. 309.

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께서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바 이상으로 숭고하시고 위대하시도다.](KI, p. 135)

이 글에서 우사마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논자는 우사마가 무슬림으로서 기본적인 이슬람 교리나 코란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이유를 추정해 보겠다. 위 장면에서 프랑크인은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가 어린 시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사마는 그림 자체보다는 그 프랑크인의 설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슬림들은 코란에 언급된 계시 내용에 근거해, 알라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 예수를 잉태하였다고 믿는다.²⁰⁾ 우사마도 무슬림으로서 그림에 묘사된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예수(Ibn Mariyam)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슬람에서, 영예스런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구원자, 경교자, 예언자로 간주되기²¹⁾ 때문이다. 이는 위 글에서 우사마가 ‘예수’ 뒤에 ‘그분께 평화가 있기를(عليه السلام)’이라는 -이슬람에서 권위를 지닌 인물의 이름 뒤에 오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사마가 의아스럽게 여기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기독교 교리이다. 이슬람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위해 메시아로 온 것’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의 신성론(神性論) 등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절대 부인하기에,²²⁾ 우사마의 부정적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는 점에서도 우사마의 문화적 충격은 크다. 이슬람에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인간처럼 열등하고 물질적인 형

20) 이에 관해서는 손주영(2005),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일조각, pp. 513-516 참조할 것.

21) 손주영(2005), p. 517.

22) 손주영(2005), pp. 517-521.

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한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²³⁾ 예화 말미에 우사마는 ‘지고하신 알라께서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상으로 숭고하시고 위대하시도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프랑크인 기독교도들의 신관에 대해 경멸 섞인 의구심을 던진다.

<프랑크족의 경이로운 의술>의 본문을 인용해보자. 다음은 프랑크족 지역을 다녀온 샤이자르의 의사가 직접 목격한 프랑크족의 치료법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들은 내게 다리에 종창이 난 기병과 정신박약자인 여자를 데려오더군요. 나는 기병을 위해 짐질을 해주고 종창을 절개해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위해서는, 규정식을 마련해주면서 기분을 안정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프랑크인 의사가 오더니 사람들에게 ‘이 자는 병자 치료법을 전혀 모르고 있소’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기병에게 ‘당신은 자신을 위해 어떻게 좋겠소? 다리 한쪽으로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리고 두 다리로 죽는 것 중에 말요.’라고 묻더군요. 기병은 ‘한 다리로 사는 게 낫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힘센 기병을 데려오고 예리한 도끼를 준비하시오’고 말했습니다. 힘센 기병이 오고, 도끼가 마련되었으며 그 자리에 나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병든 기병의 발을 나무 토막에 올려 놓았습니다. 의사가 다른 기병에게 ‘그의 다리를 도끼로 한번에 찍어서 잘라 버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가운데 기병이 다리를 한차례 찍었는데 절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리치자 다리에서 골수가 흘러나왔고, 환자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의사는 여자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머리 속에는 그녀를 사모하는 사탄이 들어있소.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시오.’ 사람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녀가 프랑크인들의 일반 음식인 마늘과 겨자를 다시 먹어대자 정신박약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사탄이 그녀의 머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23) Paul M. Cobb (2008), p. 309.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면도칼을 집어 들어 그녀의 머리통에 십자가 모양을 긁더니 한가운데 부분의 살을 벗겨내자 머리뼈가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그 뼈를 소금으로 비벼대자 그녀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내게서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아니요’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돌아왔고, 그들의 의술에 관해 내가 이전에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KI, pp. 132-133)

이 진술에서 프랑크인 의사는 다리에 종창이 난 기병의 다리를 도끼로 절단하고, 정신이상 증세 여자의 드러난 머리뼈를 소금으로 비벼댄다. 두 병자는 모두 즉사하고 만다. 그 전에 샤이자르의 의사는 그 두 병자를 각각 종창 절개와 심리 안정의 방법으로 치료해주었다. 이처럼 우사마는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이슬람 의술을 비교해 언급함으로써 그 우월함을 드러내는 한편 프랑크 의술의 저열함을 드러낸다.²⁴⁾

다른 예화는 <프랑크족의 경이로운 의술의 또 다른 사례>(KI, pp. 137-138)로,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초로 그의 콧구멍을 막아 안락사 시키는 프랑크인 신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예화에서 우사마는 신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병자를 치료하여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번에 안락사 시키는 것에 대해

24) 콕(Cobb)은, 이 일화가 당대 이슬람 의학을 포함한 이슬람 문화가 프랑크인들의 문화에 비해 앞서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표적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콕은 그러한 주장에는 세 가지 맹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성찰』에서 우사마가 전하는 일화들, 특히 프랑크족과 관련된 일화들은 (과장된 면이 있기에) 정제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이 일화는 사실보다는 인식(perceptions)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당대 이슬람 의학은 갈렌(Galen)의 의학 같은 고대의 의학 지식에 친숙해 있었음이 사실이지만, 중세 유럽인들도 십자군 원정 직전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다. 셋째, 이 일화는 이슬람 의학이나 프랑크 의학에 대한 우사마의 총체적인 이해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Paul M. Cobb (2005), *Usamah ibn Munqidh: Warrior Poet of the Age of Crusades*,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England, pp. 107-109.

그 방식이 매우 생소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 예화도 앞선 예화처럼 당시 프랑크인들의 의술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크족은 성적(性的) 질투심이 없다>에서, 우사마는 프랑크족 남자들이 자신들의 여자에 대한 질투심이나 여자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허용하고, 남자 공중 목욕탕에서 아내나 딸의 몸이 노출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우사마는 목욕탕에서 일하는 살림이라는 이름의 남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희한한 경험담을 듣는다.

“나는 알마아라에서 목욕탕을 개업해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크인 기병이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프랑크인들은 목욕탕에서 허리에 수건을 매고 있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더군요. 그래서인지 그 기병은 손을 뻗어 내 허리에서 수건을 잡아당겨 던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나는 내 치모(恥毛)를 면도했는데 그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림!’하고 나를 불렀고, 나는 그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내 음모 부위로 손을 내밀더니 ‘살림! 이거 좋은데. 내게도 그렇게 해주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등을 대고 누웠고, 나는 그 부위에 있는 수염 같은 털을 면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그 부위로 가져가더니 치모가 짧아진 것을 안 뒤, ‘살림! 내 다마에게도 그렇게 해주게’((‘다마’는 그들의 말로 ‘부인’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의 아내에게도 해달라는 말이었지요. 그는 어린 종에게 “다마에게 이리 오라고 전하라”라고 했고, 종은 가서 그녀를 데려와 욕실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녀가 등을 대고 눕자 남편은 “내게 했던 대로 해주게”라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남편이 앉아서 지켜보는 가운데 치모를 면도했습니다. 그는 내게 고맙다며 수고료를 주었습니다.”(KI, pp. 135-137)

이처럼 프랑크인 남편이 아내의 몸을 타인 앞에 드러내는 것은, 여성의 명예를 지킬 것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질투심(가이라 الغيرة)을 강조하는 이슬람 교리와 극명하게 대조되어 우사마에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아랍어 ‘가이라(غيرة)’는 자존심(self-respect), 여성과 관련된 질투심(jealousy) 등과 같은 폭넓은 의미를 갖는 어휘이다. 그것은 당사자의 명예나 위신이 도전 받거나 손상될 때 열화처럼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다. 하디스의 예문을 보면 가이라는 무슬림에게 바람직한 현상, 더 나아가 응당 갖추어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하디스에는, 신자가 알라께서 금한 것을 행할 때 알라의 가이라(분노)가 생기며, 또한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 그 남편은 가이라(질투심)가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⁵⁾ 이를 통해 볼 때 이슬람에서는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분노나 질투심은 무슬림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예화 <프랑크족의 미개한 재판>(KI, pp. 138-140)에서는 우사마가 목격한 프랑크족의 두 가지 사건의 재판과정을 소개한다. 첫째 사건의 재판 방식은, 문제 당사자인 청년과 노인 간에 직접 결투를 벌이게 하는 것으로, 결국 둘은 막대와 방패를 들고 군중에 둘러싸여 싸움을 벌이다가 힘세고 무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이 노인을 죽인다. 이 재판에 대해 우사마는 “이것이 프랑크족의 법리적이고 재판이다. -알라여 그들을 저주하소서-”라고 말하며 프랑크인들에게 신의 저주를 기원하는데, 이는 프랑크족의 법과 재판 수준이 극도로 저급한 것에 대한 우사마의 경악과 더불어 경멸을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원시적인 ‘죄인 판별법(ordeal)’의 예로, 프랑크인들은 혐의가 있는 무슬림 피고인을 물속에 넣어 그가 가라앉으면 무죄이고, 물에 뜨게 되면 유죄인 것으로 판결하는데, 결국 피고인은 후자의 상황에 직면해 불에 달군 송곳으로 눈을 멀게

25) Al-Imam Zayn-ud-Din, *Summarized Sahih Al-Bukhari*, translated by Dr. Muhammad Muhsin Khan, Maktaba Dar-us-Salam, Riyadh, Saudi Arabia, p. 903.

하는 극형에 처해진다. 한편, 프랑크인들의 불합리한 재판 결과 맹인이 된 그 남자에게 아미르 무인 알딘은 “코란과 이슬람 법리학을” 배울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 맥락에서 우사마는 이슬람 법 수준의 우수성은 은연중에 보이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코란, 순나(하디스) 및 그 두 가지 원천을 근거로 한 법학자들의 논증에서 얻어지는, 신(神)의 법규에 대한 지식으로서 이슬람 법학은 8세기 전기(前期)에 성장한 이슬람 종교법 전문가들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해, 9세기 초에 이르러 체계화되어 네 개의 주요 법학과(샤피이, 말리키, 하나피, 한발리)가 형성되었다.²⁶⁾ 이처럼 이슬람 세계는 중세에 이미 신자들의 모든 생활의 측면을 포괄하는 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그러한 고도의 문명에 익숙한 우사마에게 상기의 프랑크족의 재판은 야만적으로 보였던 것이다.²⁷⁾

2.3. 프랑크족의 장점

전술한 바처럼 우사마는 프랑크족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나타내고 그들을 열등한 족속으로 간주하면서도 드물게 그들에게서 발견한 몇 가지의 드문 장점이나 높게 평가할 만한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그것은 전쟁에서 프랑크족 병사들의 용맹함, 그들의 가공할 무기, 의술 등이다.

여러 예화를 통해 볼 때 우사마가 주목한 프랑크인의 장점은 뛰어난 전투력과 용맹함이다. 우사마는 프랑크인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26) 앤 램톤(Ann K. S. Lambton,)(1992), 김정위 옮김, 『중세 이슬람의 국가와 정부』, 민음사, pp. 31-36 참조.

27) 콕(Cobb)은, 이 일화에서 우사마가 프랑크족의 가혹한 형벌과 불합리한 법 집행에 충격을 받고 프랑크족의 재판을 조롱하고 있지만, 우사마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콕은, 십자군 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죄인 관별법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 프랑크족 법의 개요인 『예루살렘의 법령(the Assizes of Jerusalem)』을 보면 프랑크족의 법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Paul M. Cobb (2005), pp. 110-111.

전과를 올린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무모할 정도로 전투에 전념하는 특성이 있음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화로는 <프랑크인 기병 한 명이 무슬림 기병 네 명을 패퇴시키다>(KI, pp. 67-68), <프랑크인 기병 한 명이 무슬림 군대를 공격하다>(KI, pp. 68-69), <프랑크인 한 명이 동굴을 점령하다>(KI, pp. 70-71) 등을 들 수 있다. 이 예화들은 공통적으로 프랑크인 병사, 특히 기병 1인이 무슬림 병사 여럿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 역량과 대담성, 용기를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프랑크인 기병 한 명이 무슬림 군대를 공격하다>는 용맹한 프랑크인 기병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본문을 인용해보자. 때는 1111년으로 셀죽조의 무슬림 군대와 안티오크의 영주인 탕크레드의 십자군 간에 벌어진 전투를 그린다.

[마우두드²⁸⁾에게도 우수한 보병들이 있었다. 무슬림 군대는 강의 남쪽에 정렬했고 프랑크족은 북쪽에 머물렀다. (중략) 우리측 병사들이 프랑크군에게 나가 그들을 에워쌌다. 그런데 그들 중 기병 한 명이 나오더니 우리 병사들을 공격했다. 그자는 우리 군대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군대는 그의 말을 죽였고 그에게도 상처를 입혀 쇠진케 했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싸웠고 그러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갔다.

프랑크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로 갔고, 무슬림 군대도 그곳을 떠나 돌아갔다.

마우두드는 다마스쿠스로 갔다. 몇 개월 후 프랑크인 기병 한 명

28) 샤라프 알딘 마우두드 이븐 알툰티킨(شرف الدين مودود بن التونتكين). 셀죽조 술탄인 이 스파한의 무함마드 사의 대리모습을 통치했다. 압바스조의 요청에 따라 셀죽조 술탄은 탕크레드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마우두드를 총지휘관으로 하는 군대를 투입했다. Philip K. Hitti (2000), *An Arab-Syrian Gentleman and Warrior in the Period of the Crusades: Memoirs of Usamah ibn Munqidh(Kitāb al-I'tibār)*,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manuscript by Philip K. Hitt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97.

이 두 명의 시종, 동료들과 함께 안티오크 영주 탕크레드의 서신을 갖고 우리에게 도착했다. 서신에서 탕크레드는 말했다.

“이 사람은 프랑크족의 예의 바른 기병입니다. 그는 순례를 위해 왔으며,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을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 측 기병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보내니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준수한 용모의 청년으로, 멋진 복장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다. 얼굴에는 머리 가리마에서 안면의 중간까지 칼로 베인 자국이 나 있었다. 내가 그에 관해 묻자 병사들이 대답했다.

“이 자가 바로 이스바슬라르 마우두드의 군대를 공격했다가 자신의 말을 잃은 그 기병입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싸웠고, 그러다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시더라도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알라께서는 숭고하시도다. 사람은 제아무리 심약해도 수명이 연장되지 않고, 제아무리 대담해도 수명이 단축되지 않는구나.] (KI, p. 69)

이 예화를 보면, 프랑크족 군대가 무슬림 군대에 포위된 상황에서 한 프랑크인 기병이 혼자 나와서 무슬림 병사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그의 말이 죽고 그는 부상을 당한 가운데 계속 싸움에 임했고 간신히 자신의 부대로 돌아간다. 몇 개월 후 그 기병은 무슬림 기병대에 관한 개인적인 관심에서, 안티오크 영주 탕크레드의 공식 서신을 갖고 혼자서 이슬람 부대를 방문한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뻔한 적 기병이 다시 무슬림 군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본 우사마는 그자의 대담함에 감탄하며, 이야기 말미에 “제아무리 대담해도 수명이 당겨지지 않는구나”라는 말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병의 용기를 극구 칭찬해마지 않는다.

전투에서 프랑크족의 역량과 더불어 그들의 무기 또한 뛰어난 점이 있음을 우사마는 발견한다. 그 예로, 우사마는 프랑크족의 가공할 대형 투

석기의 위력에 대해 말한다. 예화 <프랑크족이 투석기로 샤이자르를 공격하다>(KI, pp. 113-114)에서는 프랑크족의 투석기가 무슬림들의 성채와 가옥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광경이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우사마는 그 대형 투석기가 무거운 돌을 화살보다 더 멀리 던지며, 건물을 파괴하고 성벽에 구멍을 뚫는 등 공격 전술 수행시 효과가 크고, 사람을 맞추는 경우 즉사할 만큼 치명적인 무기라는 내용을 보고한다.

또한 우사마는 프랑크족에 대한 증오심과 더불어 그들의 믿기 어려운 만큼의 강인함이나 전투 역량에 대한 놀라움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사탄²⁹⁾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다음에서 우사마는 혐오의 대상인 중병을 앓던 프랑크 기병이 치유되자 그자의 신체적 회복 능력에 대한 감탄을 담아 그자를 사탄에 비유한다.

[나는 프랑크족의 의술과 관련해,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목격했다. 그들의 왕³⁰⁾은 기병들 중에 버나드-알라의 저주가 있기를-라는 이름의 남자를 보고(寶庫) 관리자로 임명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땅하고 비열한 프랑크인들에 속하는 자였다. 말이 그의 발을 차는 바람에 그의 다리가 굽아 14군데에 구멍이 생겼다. 상처의 한 군데가 아물면 다른 곳에 구멍이 생겼다. 나는 그가 죽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에게 프랑크인 의사가 왔다. 의사는 그의 상처에게 발랐던 연

29) 이슬람에서 ‘사탄(알샤이탄 الشيطان)’은 ‘이블리스(악마)’와 같은 존재로 간주된다. 코란에 묘사된 사탄의 속성이자 능력 중에는 공포를 일으키는 것, 실수하게 만드는 것, 타락시키는 것, 적의(敵意)와 증오를 유발하는 것, 유혹, 망각, 싸움 조장 등이 있으며, 또한 사탄은 불신자들의 동료, (이슬람의) 원수 또는 적으로 묘사된다.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나 행위를 범하도록 이끄는 사악한 존재이다. C. E. Bosworth & others (1997), *The Encyclopedia of Islam*, vol. 9, new edition, Brill, Leiden, Netherlands, ‘SHAYTAN’.

『성찰』에서 우사마는 몇몇 프랑크인을 ‘사탄’으로 비유함으로써 ‘강하고 용맹’하지만 또한 ‘이슬람의 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30) 예루살렘 왕 풀크 5세(Fulk V of Anjou)를 가리킨다. Philip K. Hitti (2000), p. 162.

고를 제거한 뒤, 신맛이 강한 식초로 상처를 씻어냈다. 상처 부위는 아물었고 그는 치유되어 사탄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KI, pp. 133-134)

또한 우사마는 안티오크의 젊은 영주인 보에몽 2세가 저돌적으로 샤이자르의 기마 부대를 공격하여 위기에 몰아넣자 그의 혈기왕성함에 놀라며 그를 사탄에 비유한다.

[사탄 같은 보에몽의 아들은 우리측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중략) 적 부대가 내려왔다. 보에몽의 아들과 그의 군대는 말을 타고 홍수처럼 몰려왔다. 우리 동료의 말이 창에 찢렸다. 우리 기마부대의 선두와 적군 기마부대의 선두가 마주쳤다.

우리 병사들 중에는 미카일이라는 이름의 쿠르드인이 있었다. 그는 적군 기마부대의 앞쪽에서 달아나고 있었고 그의 뒤를 프랑크인 기병이 바짝 붙어 쫓아갔다. 쿠르드인 병사는 적 기병의 앞에서 달려가면서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 프랑크인 기병과 마주치자 그는 쿠르드 기병에게서 벗어났고 내가 가던 길에서 빠져 나와, 강가에 무리지어 우리 가까이에 멈춰서 있는 우리 기마 부대로 향했다. 나는 그 프랑크인의 뒤를 쫓아가면서 내 말이 그를 따라잡게 해 그를 창으로 찌르려 애썼지만 내 말은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 프랑크인 기병은 내게 고개도 돌리지 않았으며 오로지 모여 있는 기마대를 공격하려 했다. 내가 그를 뒤쫓는 가운데 마침내 그자는 우리 기마대에 도착했다. 내 동료들은 그의 말을 창으로 찢러 꼼짝 못하게 했다. 그의 동료들이 무리 지어 그의 뒤를 따라왔는데 수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 기병은 돌아갔고 그의 말은 마지막 숨을 몰아 쉬었다. 그는 자기 동료들을 만나 그들 전원에게 퇴각을 지시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돌아갔다. 그 기병은 다름아닌 안티오크의 영주인 보에몽의 아들이었다. 아직 젊

은 그였기에 그의 심장은 (만일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일 그가 자기 동료들을 싸우도록 내버려두었다면 그들은 우리를 패퇴시켜 우리를 도시[샤이자르 성내]로 퇴각하게 했을 것이다.] (KI, pp. 121-122)

이처럼 우사마는 프랑크족 병사들의 전투력과 그들이 만든 무기의 우수성을 들며 전쟁 수행에서 그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싸움과 파괴를 선호하는 그들의 전쟁 광기와 폭력성을 고발한다. 우사마는 프랑크족이 무력 사용 같은 물리적 활동에만 능하여 사나운 짐승이나 험센 가축의 대열에 속하는 저열한 족속으로 보고 있으며, 지적 수준에서는 온전한 인간의 반열에 놓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무슬림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암시한다. 이에 관련해 우사마의 생각을 들어보자.

[만일 어느 사람이 프랑크족의 특성을 알게 된다면 지고하신 알라를 찬미하고 알라를 성스럽게 모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동물에 있는 용맹성과 전투력이라는 장점만 있을 뿐 그 외 장점은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짐승에게서 강인함과 짐을 실어 나르는 힘의 장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KI, p. 132)

우사마는 전반적으로 프랑크인들을 무지하고 물리적인 힘만 가진 저열한 족속으로 여기지만 단 프랑크인 기병만은 예외로 둔다. 우사마가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크인 기병이야말로 프랑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미덕과 온전한 판단력을 갖춘 자들이다. 우사마는 실제로 프랑크인 기병들이 왕을 보좌해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높은 위상을 누리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는 예화 <프랑크족 내에서 기병의 위상>에서 나타난다.

[프랑크족-알라여 저들을 내버리소서-에게는 용감함 말고는 인간의 미덕이라고 한가지도 없다. 그들에게는 기병만이 우선권과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프랑크족에는 기병 외에 진정한 사람은 없다. 기병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이고 법적 판결과 판단을 하는 자들이다. 일전에 한번, 나는 프랑크족에게 재판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니아스³¹⁾의 영주가 숲에서 가져간 양떼들에 관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와 그들 간에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때 다마스쿠스에 있었다. 나는 (예루살렘 왕인) 풀크의 아들 풀크 왕³²⁾에게 말했다. (중략)

왕은 예닐곱 명의 기병들에게 “일어나서 그자에 대한 판결을 하라”고 명했다. 기병들은 어전에서 물러나와 따로 모여 상의를 했다. 그들 모두는 한가지 결론으로 의견의 합치를 본 뒤 왕의 회의실로 갔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바니아스의 영주가 저들의 양떼에 피해를 준데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벌금을 내라고 명했다. 영주는 내게로 와서 애걸하다시피 간청했고, 결국 나는 그에게서 4백 디나르를 받았다. 기병들이 내린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프랑크족 왕이나 그 어느 고위직 사람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프랑크족 안에서 기병은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KI, p. 64)

또한 앞서 예시한 <프랑크인 기병 한 명이 무슬림 군대를 공격하다>에서도 우사마는, 양 진영간 전쟁 상황과는 별도로 적군인 무슬림 기병에 관해 순수한 지적 관심을 갖고 이슬람 진영을 찾아온 프랑크인 기병

31) 바니아스(بانياس): Caesarea Philippi, Paneas. 당시 그곳의 영주는 Brus라는 성을 가진 Renier이었다. Philip K. Hitti (2000), p. 93; 요르단강의 수원지에 위치한 도시로, 프랑크족이 1140년 점령했다. Paul M. Cobb (2008), p. 294.

32) 풀크의 아들 풀크 왕. 풀크(Fulk) 5세. 앙주(Anjou)의 백작. 멜리장드(Melisende) 여왕과 결혼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1131-43년 재위). Paul M. Cobb (2008), p. 295.

에게 감탄과 존경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또한 뒤에서 구체적으로 예시 할 이야기들³³⁾을 보면 우사마는 몇몇 프랑크인 기병들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프랑크인 기병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사마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지적 수준에서 프랑크인은 무슬림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다. 그럼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탁월한 기술이나 능력, 판단력을 지닌 일부 프랑크인이 있음을 발견한다. 한 예화는 <프랑크족의 경이로운 의술>(KI, pp. 133-134)로,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굶은 부위가 있는 기병을 치료해 낮게 해 준 프랑크인 의사와, 목에 연주창이 생긴 아이에게 약을 처방해주어 낮게 해 준 프랑크인에 관해 말한다. 이 예화는 전술한 프랑크인의 미개한 의술과는 정반대로 탁월한 의학 지식을 지닌 프랑크인도 있음을 보여준다.

2.4. 무슬림과 프랑크족의 교류

전술한 바처럼 『성찰』의 예화에서 볼 때 우사마는 심중에 이슬람 진영의 적으로서 프랑크족에 대한 증오를 지녔음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다른 여러 예화들은 프랑크족 진영과의 대립 및 공생이라는 현실 상황에서 무슬림들이 적정선에서 그들과 외교관계나 개인적인 교류를 유지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예화 및 장면들을 보자.

예화 <보두앵이 우사마의 삼촌에게 배상금을 면제해준다>(KI, pp. 120-121)는 무슬림들과 프랑크족 양 진영 간의 전쟁 상황에서도 미래의 불확실한 사태에 대비해, 일정 수준에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 이야기는, 우사마의 문끼드 가문이 한때 포로로 잡혀있던 예루살렘 왕 보두앵을 예우해준 것³⁴⁾으로 인해, 후에

33) <프랑크족에게는 교양이라곤 없다>, <프랑크인이 우사마의 예배를 방해하다>.

34) 보두앵 2세는 에데사의 백작(1100-1118 재위)이었다가 예루살렘 왕(1118-31 재위)

안티오크의 왕이 된 보두앵이 문끼드 가문이 납부해야 하는 배상금³⁵⁾을 면제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이 예에서 보듯, 양 진영이 근접해 있거나 이웃해 있는 경우 무슬림들과 프랑크인들은 필연적으로 상호 이해관계에 놓이게 마련이기에, 양 진영은 이 점을 고려해 전쟁과는 별도로 일종의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처럼 우사마가 부리조에서 일할 당시 외교 사절로 십자군 지역을 빈번히 방문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성찰』에서 “프랑크족의 본성과 윤리” 절 이하에 속한 여러 예화들은 우사마나 그의 지인들이 십자군 지역을 방문할 때 관찰하고 경험한 사항이나, 그들이 알고 지낸 프랑크인들과 교류하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중 한 예화 <프랑크족에게는 교양이라곤 없다>는 우사마와 친분이 두터운 프랑크인과의 일화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우사마가 알고 지내던 프랑크인 기병이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우사마의 아들을 함께 데려가 유럽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우사마는 거절한다. 우사마는 적군 진영에 자식을 보내라는 그 제안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이 일화에서 우사마가 강조하는 점은 프랑크인의 결례와 양식(良識)의 부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식 교육에 관해 대화를 나눌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이 지냈고, 다음 본문에서 보듯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폴크의 아들인 폴크 왕의 군 진영에 겸손한 프랑크인 기병이 있었다. 그는 순례를 위해 프랑크 족 나라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자였

이 되었다. 보두앵 2세는 1123년 무슬림 측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결국 샤이자르에 머물렀으며 우사마의 삼촌인 술탄의 중재를 통해 석방되었다. 이를 통해 보두앵은 우사마의 가문에 신세를 지게 되었다. Paul M. Cobb (2008). p. 299, p. 304.

35) 안티오크의 영주 탕크레드가 1110년부터 샤이자르에 부과한 연공(年貢)을 말한다. Paul M. Cobb (2008), p. 307.

다. 그는 나와 친해져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며 친구로 지냈고, 우리는 서로 가깝게 지내며 정을 나누었다. 그가 해상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마음 먹었을 무렵, 내게 말했다.

“형제여.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귀국하는 길에 당신 아들을 함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14살이 된 내 아들이 옆에 함께 있었다.) 당신 아들은 우리 나라에서 기병들을 직접 보고, 지식을 얻고 기사도를 배울 것입니다. 아드님이 귀국할 때면 교양을 갖춘 남자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교양 있는 남자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 내 귓전을 때렸다. 나는, 내 아들이 설령 전쟁 포로가 된다 해도 그것이 프랑크족의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병에게 말했다.

“정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의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 귀여워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 애를 데리고 외출하려 하면 그 애를 반드시 어머니께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다짐을 내게 받지 않고서는 못나가게 하시지요.”

기병은 “어머님께서서 살아계십니까?”라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렇다면 어머니 말씀을 어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KI, p. 132)

이 기록으로 보아 프랑크인 친구는 우사마를 신뢰하고 있으며, 그가 우사마의 아들을 유럽으로 데려가 기사도를 배우게 해주려는 제안도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문맥으로 보아 프랑크인은 진심으로 우사마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아들의 유학을 권유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사마는 손자를 아끼는 어머니를 핑계로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재치를 발휘한다. 우사마와 친분이 깊은 그 프랑크인은 우사마의 아들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통해 서로간에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사마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사마는 양식 있는 자라면 아들을 적 진영에 보낸다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면서, 유학 제안을 한 프랑크인 친구를 몰지각한 자로 여긴다. 곱 또한 우사마가 프랑크인 친구의 환대를 피하고, 그런 제안을 한 프랑크인을 조롱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⁶⁾

다른 예화 <프랑크인이 우사마의 예배를 방해하다>(KI, pp. 134-135)는 이전에 레반트 지역에 들어와 체류하는 십자군 기사단원들 중에 우사마와 친분이 두터운 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용은 이러하다. 최근에 유럽에서 이주해온 한 프랑크인이 -당시 십자군 수중에 놓였던- 예루살렘의 아크사 사원 경내에서 예배를 드리려던 우사마를 방해하자, 우사마와 친한 템플 기사단원들이 달려와서 그 프랑크인을 저지한다. 이 이야기의 몇 장면은 우사마가 기사단원들과 매우 친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첫 장면은, 우사마가 아크사 사원 경내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자 템플 기사단원들이 그를 위해 그곳의 한 작은 사원을 비워주는 장면으로, 무슬림 친구를 위해 적 진영의 십자군 전사들이 예배 장소를 마련해주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음 장면은, 사원 안에서 우사마의 예배를 방해하는 프랑크인을 기사단원 친구들이 만류하면서 그자를 대신해 우사마에게 사과하는 장면이다. 자칫 위협에 처할지 모를 친구를 도와주려는 십자군 기병들의 진심어린 행동을 엿볼수 있는 장면으로, 우사마와 그들 간에 깊은 우정을 느끼게 한다. 이 일화는 우사마가 프랑크인 기병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큼 그들과 돈독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예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프랑크인>이 있다. 이 이야기는 프랑크인들 중에는 이슬람 지역에 산 지 오래된 자들로 무

36) 이와 관련해 13세기 무렵 시리아 기독교도가 언급한 말은 참고할만하다.

“우리 시대[13세기]에 프랑크인들의 공작들은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것과) 매우 동일한 관습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을 동맹 국가들에서 봉사하게 한다. 그렇게 하여 자식들이 동맹국가의 하인들 속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과 함께 훈련과 겸손, 예절을 익히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식들은 부친이 내리는 명예를 받을만한 자격을 갖게 된다.” Paul M. Cobb (2005), p. 106.

슬림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친화적인 자들이 있음을 말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크인들 중에는 이곳 환경에 적응하여 상당 기간 무슬림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최근에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 이곳에 온 프랑크인들보다 선량하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이례적인 경우로, 프랑크인들의 전형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업무 차 동료 한 사람을 안티오크로 보낸 적이 있다. 당시 그곳의 라이스³⁷⁾는 타드루스 이븐 알싸피로 그와 나는 친한 사이였고, 그는 안티오크에서 영향력이 큰 자였다. 그가 하루는 내 동료에게 “내 프랑크인 친구가 나를 초대했소. 당신도 나와 함께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도록 하지요”라고 말했다. 내 동료가 말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길을 나서, 프랑크족의 1차 출정 때 참가했던, 나이 많은 기병들 중 한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기병은 공무나 군 복무를 이미 마쳤으며 안티오크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땅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깨끗하고 고급스런 음식이 차려진 멋진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나는 프랑크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집트 여자 요리사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만든 요리만 먹어요. 우리 집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 나는 시장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프랑크인 여자가 나를 붙잡더니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언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프랑크인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었고 나는 이제 죽

37) 라이스(الريس): 특정 지역의 수장(首長)으로, 통치자는 라이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다스렸다. 다마스쿠스처럼 큰 도시에서 라이스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Paul M. Cobb (2008), p. 298.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전에 알게 된 그 노(老)기병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여인에게 ‘대체 당신은 이 무슬림에게 무슨 일이 있소?’라고 묻더군요. 그녀는 ‘이 자가 내 형제 우르스를 죽였소’라고 답했습니다. 우르스라는 자는 아파미야 지역의 기병으로, 하마의 무슬림 병사들에게 살해되었지요. 노기병은 그녀에게 소리쳐 ‘이 사람은 부르주아 사람³⁸⁾-즉 상인-으로 전투에 나가 싸우는 일은 하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모여든 사람들에게도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는 내 손을 잡아 이끌고 갔습니다. 이전에 그와 함께 식사한 것이 나를 죽음에서 구해준 결과가 되었지요.’](KI, pp. 140-141)

이야기에서 우사마의 부하와 친해진 프랑크인 노인은 이슬람에서 금지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의 집에는 이집트 여자 요리사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슬림들의 식습관에 익숙해진 자이다. 우사마의 부하는 노인의 집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그와 면식이 있게 되고, 그 덕분에 죽을 위기에서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다. 이 예화는 오래 전 1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이래 이슬람 지역에 정착해 사는 프랑크인들 중에는 이슬람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럽에서 건너온 지 오래되고 이슬람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프랑크인들 중에는 그 문화와 관습을 배우거나 무슬림들과 우호적으로 지낸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8) 이어 부연하고 있듯이 우사마는 부르주아(원문에서 아랍어로 ‘부르자시(برجاسي)’)를 상인(商人)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부르주아의 어원인 라틴어 ‘부르겐시스(burgensis)’는 11세기에 새로 창설된 성곽 도시(라틴어로 *burgus*, 프랑스어로 *bourg*)의 주민을 지칭했다. 부르겐시스는 영주에게 종속되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면서 수공업이나 상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흔히 부르겐시스는 메르카토르(*mercator*), 곧 상인과 동의어였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2015),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822.

3. 결론

우사마의 『성찰』은 인생 회고록으로서 저자 자신의 다양한 인생 경험에 관련된 일화들을 담고 있다. 본고는 그중에서 십자군 측 사람들, 곧 프랑크인들에 관련된 일화들을 분석용 자료로 삼아 프랑크인에 대한 우사마의 시각을 조사했다. 즉 우사마가 십자군을 상대로 전쟁에 참여하고 때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목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그가 인지한 것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사마의 인생에서 對십자군 관계 및 문제는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당면한 현실 과제로, 우사마는 회고록에서 프랑크족 문제를 중시해 기록했다. 우사마는 생의 말엽에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많은 인생 경험이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으며, 그 중에서도 이슬람 영토의 침략자들인 프랑크족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려 했다. 이슬람 영토를 침략해 오랜 기간 점령해온 십자군에 맞서기 위해 우사마는 자신의 글로써 무슬림들이 향후 프랑크족을 상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려 했을 것이다.

둘째, 적군 프랑크족에 대한 우사마의 분노와 증오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성찰』의 일화 곳곳에서 그 증거가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적개심과 반감이 『성찰』에서 우사마의 유일한 對십자군 감정이나 입장은 아니다. 일부 일화들은 우사마나 일부 무슬림들이 프랑크인들과 친분이 있거나, 집으로의 초대나 개인적 교류를 나누는 등 친구나 이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간 교류 장면은 우리가 자칫 선입견에 치우쳐 십자군과 무슬림들 양 진영간 전쟁이나 갈등만을 염두에 두었던 습관에서 벗어나 양측 관계를 재고할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셋째, 우사마는 프랑크족의 문명 수준에 대해 대체로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³⁹⁾ 때로 프랑크인의 문화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

신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드물게 우사마는, 뛰어난 성능의 투석기 제조 기술이나 탁월한 치료법 같은 프랑크인의 역량에 감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가 보는 프랑크족은 전쟁을 위한 물리적 활동에 능한 반면, 세련되고 지적인 문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성간 만남과 관련해서 우사마는 남녀간 엄격한 격리를 강조하는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 프랑크족의 남녀 윤리관을 비난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을 유럽에 데려가 교육시켜주겠다고 제안한 프랑크인 친구를 교양이 부족한 자로 여기며 제안을 거절한다.

넷째, 우사마는, 자신이 관찰한 프랑크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증스럽고, 문명과는 거리가 먼 자들로 여기지만, 그중 두 부류의 프랑크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다. 그중 하나는 십자군 기사로, 우사마는 그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관심을 보이며, 십자군 기사들과 친구 관계나 의형제를 맺고 있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우사마 본인이 무슬림 기병으로 아랍의 전통적 푸루시아(فروسية 기사도)를 중시하고, 또한 몇몇 일화에서 보듯이 십자군 기사들의 용기와 불굴의 자세, 지적 능력을 직접 목격한 데서 찾을 수 있겠다. 특히 우사마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를 그의 친구인 십자군 기사들이 제지해주는 장면에서 우사마와 그들간의 돈독한 우의를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래 전에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다가 이슬람 지역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이슬람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진 프랑크인들로, 우사마는 이들에 대해 무슬림들과 어울려 지내며 교분을 나눌 만한 사람들로 여긴다.

39) 본고는 우사마가 살던 시대의 이슬람 문명과 프랑크족 문명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과연 우사마가 -의술, 윤리관, 재판 등에서- 판단한 프랑크족의 문명 수준이 이슬람의 그것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는 없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김용선(역주)(1983), 『성(聖) 꾸란-이슬람 경전』(上, 中, 下), 박영사.
- 최영길(역주)(A.H. 1422),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사우디아라비아.
- Al-Imam Zayn-ud-Din (Ahmad bin Abdul-Lateef Az-Zubaidi), *Summarized Sahih Al-Bukhari(Arabic-English)*, translated by Dr. Muhammad Muhsin Khan, Maktaba Dar-us-Salam, Riyadh, Saudi Arabia.
- Cobb, Paul M. (2008), *Usamah ibn Munqidh-The Book of Contemplation-Islam and the Crusade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Paul M. Cobb, Penguin Books.
- Hitti, Philip K. (2000), *An Arab-Syrian Gentleman and Warrior in the Period of the Crusades: Memoirs of Usamah ibn Munqidh(Kitāb al-I'tibār)*,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manuscript by Philip K. Hitti, with a new foreword by Richard W. Bullie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USA.

- ابن منظور، لسان العرب، الطبعة الأولى، دار صادر، بيروت، لبنان.

- جماعة من كبار اللغويين العرب، المعجم الأساسي، لاروس.

- محمد سعيد اللحام (2005)، المعجم المفهرس لألفاظ القرآن الكريم، دار المعرفة، بيروت، لبنان.

- أسامة بن منقذ، كتاب الاعتبار، حرره فيليب حتي، مكتبة الثقافة الدينية، القاهرة.

- أسامة بن منقذ، الاعتبار، دار الهلال، مصر.

【논 저】

- 김능우(역주)(2016), 『중세 아랍시로 본 이슬람 진영의 대(對)십자군 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_____(2014), 『십자군 전쟁 당시 아랍 시인들의 이슬람 진영에 대한 비판: 아랍 시 텍스트를 통한 문학사회학적 고찰』, 『중동연구』 제33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

- 김능우(2001), 『중세 아랍 시에 나타난 ‘십자군과 이슬람 세계와의 충돌’에 관한 연구: 1차 십자군 원정(1096년)부터 샬라흐 알딘 시대 말(1193년)까지』,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2호, 한국중동학회.
- 김정위(편)(2002), 『이슬람 사전(事典)』, 서울: 학문사.
- 램톤, 앤(Lambton, Ann K. S.)(1992), 김정위(옮김), 『중세 이슬람의 국가와 정부』, 서울: 민음사.
-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2015), 『역사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손주영(2005),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서울: (주)일조각.
- Cobb, Paul M. (2005), *Usamah ibn Munqidh: Warrior Poet of the Age of Crusades*, Makers of the Muslim World Series,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England.
- Gibb, H. A. R. & others (1986), *The Encyclopedia of Islam*, vol. 1, new edition, E. J. Brill, Leiden, Netherlands.
- Bosworth, C. E. & others (1997), *The Encyclopedia of Islam*, vol. 9, new edition, Brill, Leiden, Netherlands.
- Holt, P. M. (1986), *The Age of the Crusades: The Near East from the eleventh century to 1517*, Longman, London and New York.

- محمد عجيبة (1994), موسوعة أساطير العرب عن الجاهلية ودلالاتها، المجلد الأول، دار الفارابي، بيروت، لبنان.
- حسين أحمد أمين (1983)، الحروب الصليبية في كتابات المؤرخين العرب المعاصرين لها، مكتبة النهضة العربية، القاهرة، مصر.
- أحمد أحمد بدوي، حامد عبد المجيد(تحقيق وتقديم) (1983)، ديوان أسامة بن منقذ، الطبعة الثانية، عالم الكتب، بيروت، لبنان.

원고 접수일: 2017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Abstract

On Usama ibn Munqidh's Perception of the Franks:
Analyzing His Memoirs *The Book of Contemplation*

Kim, Neung Woo*

This paper examines anecdotes related to the Franks in Usama ibn Munqidh's memoirs *Kitāb al-I'tibār (The Book of Contemplation)*, paying attention to the details of what the author had witnessed participating in the war against the Crusaders.

The fact that Usama wrote about the Frankish issue demonstrates that the Crusade was a crucial issue for Muslims of the day. He seems to have conveyed his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the Franks in order to help the Muslims break through reality. The hatred of Usama against the Franks is evident in the expression of God's curse and punishment for them in several anecdotes. However, some stories show some Muslims, including Usama himself, being acquainted with the Frankish people.

Usama generally has an attitude of contempt and disdain for the level of Frankish civilization. He regards the Franks as inferior people, except for two groups amongst them. The first consists of the crusader knights for whom Usama shows respect and concern - he maintained a friendship with some knights.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the Frankish people who settled in the Muslim area and became accustomed to Islamic culture.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